남자들이 말하는 '매일' 만나고 싶은 여친 유형

예쁜 여자, 몸매 좋은 여자, 돈 많은 여자.

남자들이 관심 있는 것은 여자의 '겉모습' 인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남자가 '너무 좋다' 고 표현하는 여자친구 유형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외면적 아름다움은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아 3개월이 지나면 시들해지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기한이 없기 때문이다.

내면이 아름다워 항상 만나고 싶다는 여친 유형을 인사이트(insight.co.kr)가 소개했다.

1. 배려심이 있다.

연상의 여인이 남자들에게 인기 높아진 이유가 바로 '배려심' 때문이다.

적자생존의, 시대 여자도 남자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지친다. 매번 챙겨달라고 조르는 연인보다 일상생활에서 배려심 넘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인기 있는 이유다.

2. 말을 잘 들어준다.

군대, 자동차, 스포츠 등에 관한 주제를 좋아하는 여자는 드물다.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주제라도 상대방의 이야기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여친에게 남자들은 부담 없이 대화 주제를 꺼낼 수 있어 항상 보고 싶어 한다.

3. 긍정적이다.

언제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함께 있는 사람도 기운 빠지게 된다. 반면 어떤 일이든 웃으면서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 어느새 함께 웃게 될 때도 있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여친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게 해준다.

4. 개념이 있다.

식당에 가서 문을 열어주거나, 집까지 바래다주거나, 데이트 비용을 더 많이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 남자들은 부담스러워 하곤 한다.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데이트 비용을 동등하게 부담한다거나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을 남자친구에게만 미루지 않는 여자친구라면 매일 봐도 질리지 않을 것이다.

5. 독립적이다.

누군가와 사귈 때 다른 사람에게 맞춰 자신의 모든 스케줄을 정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과 사귀면 더 잘해줘야 하고 그 사람을 책임져야 할 것 같아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반대로 자기주장이 확실하고 자기 일을 똑심 있게 해내는 독립적인 사람이라면 부담스럽지 않고 자꾸 연락하고 싶어진다.

6. 자연스러운 애교가 있다.

과한 애교를 보면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는 남자들이 늘고 있다.

과한 애교보다 바라보며 미소를 짓거나 부드럽게 이름을 부르는 자연스러운 애교가 더 마음을 흔드는 경우가 많다.

사진=shutterstock

시니어 헬스케어 전문 H MART 옆

HOWARD DRUGS

•깨끗한 시설 •저렴한 가격 •친절한 서비스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상담 전문

세리토스, 실비치, 싸이프러스, 롱비치, 하와이언 가든, 다우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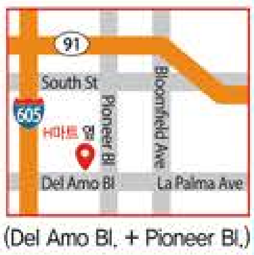
30년 병원 임상경험

*노 약사에게 전화주세요

약사 노혜경

Pharm.D.

Board Certified Pharmacotherapy Specialist



(Del Amo Bl. + Pioneer Bl.)

하워드 약국

562-866-6011

20141 Pioneer Blvd. Lakewood, CA 92715

Buena Park Nursing Center ★★★★★

부에나 팍 양로병원

▶ Skilled Nursing

IV 투여, 당뇨 및 투석관리, 스페셜 통증관리, 튜브영양법, Wound Care, TPN 등

▶ Subacute Unit

Respiratory Therapy, Tracheostomy Care Ventilator 등

서비스	재활치료
한국음식 또는 미국음식 한국인 스태프 / 한국인 소셜워커 한국책, 신문 / 24시간 한국방송 다양한 한인교회 봉사활동	물리치료 (PT) 작업치료 (OT) 언어치료 (ST)

메디케어, 개인, 메디칼, HMO, PPO 취급합니다

한국어: 562-240-3516 www.buenaparknc.com

영어: 714-828-8222 Fax: 714-828-1467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조미용
고운소금

이제는 한국산 천일염도 드시면 안 됩니다.

세계적인 청정해역 남부 바하 캘리포니아산 저염 소금

50 lbs 100 포대 한정 판매합니다. $250/50 파운드 팩

Prior to the 1950s, salt extraction in this area was small-scale and methods were rudimentary. In the 1950s, San Francisco ceased supplying salt to the US west coast paper industry and an alternative source of salt was needed. Daniel Ludwig (who would later build the famed Acapulco Princess Hotel) set up a company at the saline Ojo de Liebre coastal lagoon near Guerrero Negro in 1954; three years later, salt was exported to the USA for the first time. Ludwig sold the company in 1973. Exportadora de Sal (Salt Exporter) is now jointly owned by the Mexican government (51%) and the Japanese Mitsubishi corporation (49%).

주문 및 배송 문의: 213.880.3027 Kenneth Lee / 이 일